

예티엔스(葉天士)의 中風前兆5因 4症과 治療4法에 관한 연구¹⁾

후난(湖南)省中醫藥研究院 양웨이후아(楊維華) 씀
한국한의학회연구소 의사문헌연구실 신순식 옮김

摘要: 본 논문은 예케이²⁾(葉桂, 1667~1746, 字 天士, 號 香岩, 江蘇吳縣人)가 中風前兆症을 論治한 임상경험을 검토했다. 5因4法을 제시했는데, 이 경험은 중풍전조증의 예방과 치료에 여전히 臨床指導意義가 있다.

핵심용어: 예티엔스(葉天士) 중풍전조 治法

中風은 하나의 症으로 中醫의 風 癱 瘓 膈 4大症중에 우두머리다. 일단 발생하면 혹은 暗 혹은 盲 혹은 癱 혹은 亡하여 위험과 해로움이 몹시 크다. 그러므로 미연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면 전조증의 치료를 중시해야 한다. 이것이 중풍을 예방하는 열쇠이다. 예티엔스는 『臨證指南醫案』의 「中風」의 32案중에 중풍전조의 醫案 5개를 명백하게 말하였고, 본서의 「眩暈」중에는 중풍전조의 의안 1개를 분명하게 얘기해 놓았다. 이는 예티엔스의 중풍전조를 論治하는 독특한 경험으로 그의 눈술이 정밀하다든지 증을 나눈 것이 완전하다든지 그리고 치료의 妙함은 여전히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그의 중풍에 대한 病因 病症 治法에 대해 검

토를 할려고 하는데 필자가 재능이 모자라고 학문이 얕아 예씨의 임상경험이 정묘한 것에 대해 빠뜨림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同道 諸賢들이 가르치어 바로잡아 줄 것을 바란다.

1. 發病5因

예씨는 중풍전조 6案을 논치하고 매안마다 發病의 원인을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의 5중으로 귀납할 수 있다.

1-1. 厥陰의 內風이 上乘하고 “升騰이 지나쳐 脂液이 四末을 營養할 수 없다.”(升騰太過, 脂液無以營養四末.)³⁾(盧案)

만일 마침 “春木이 升을 맡게”(春木司升) 될 때를 즈음하여 “嗔怒로 陽이 움직이고”(嗔怒動陽) 厥陰의 內風이 上乘하며 陽氣의 “升騰이 지나쳐 脂液이 四末을 營養할 수 없게”(升騰太過, 脂液無以營養四末) 되어 “非속의 뿌리에 싹이 트는”(非中根萌) “손가락과 발가락의 마디가 나무같이 뻗뻗해지는”(指節麻木) 전조증

- 2)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의 중국음에 대한 우리말 표기는 씨케이 시스템(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 349-361.)에 의한 것이다.
- 3) 葉天士 著: 徐靈胎 評. 『臨證指南醫案』, 第7次印刷.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3.

1) 湖南省中醫藥研究院 楊維華 著. 「葉天士對 中風先兆五因 四症與治療四法的探討」, 『湖南中醫雜誌』, 9卷 第3期, 1993: 2-4.를 번역한 것이다.

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陽이 오르고 熱로 짙고 液이 모자라지는 것(陽升熱蒸液虧)은 발병 요소중의 하나이다.

1-2. “中年에 勞倦하면 陽氣가 갈무리되지 않아 內風이 움직이고 넘쳐나게 된다.”(中年勞倦, 陽氣不藏, 內風動越.)(周案)

만일 “大寒과 土旺의 계절의 기후”(大寒土旺節候)에 노권이 지나치면 “陽氣는 갈무리되지 않고 內風이 움직이고 넘쳐 되는”(陽氣不藏, 內風動越.) 현상이 발생하여 “麻痺와 살이 바르르 떨리는”(麻痺肉瞶) “裏가 虛하여 갑자기 맞게되는”(裏虛欲暴中) 전조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勞倦 陽虛 衛疏는 발병요소중의 하나이다.

1-3. “五志의 氣와 火가 위에서 엇갈려 병합한다.”(五志氣火交并於上.)(某嫗案)

“평소 화를 내고 과로를 하며 근심걱정을 하고 생각을 많이해서 五志의 氣와 火가 위에서 엇갈려 병합하는”(平昔怒勞憂思, 以致五志氣火交并於上) 것이 있는데다 “風木의 司天의 해에”(風木司天) “봄 여름의 陽이 오르는 기후”(春夏陽升之候)에 이르르게 되면, 곧 “입술과 혀가 나무처럼 뻣뻣하고 팔 다리의 마디가痿症과 같다.”(脣舌麻木, 肢節如痿.) 등의 “中厥의 싹”(中厥之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五志의 氣와 火가 위를 공격하는 것은 중풍전조발병요소중의 하나이다.

1-4. “腎精이 모자라 거두워들이는 권한이 없다.”(腎精虧虛, 收納無權.)(曾案)

“腎陰이 弱하면 거두워들이는 권한이 없게 되고 肝陽이 熾烈해져 虛風이 구멍을 덮어버리면”(腎陰弱, 收納無權, 肝陽熾, 虛風蒙蔽) 上實(脈弦動, 眩暈耳聾)과 下虛(下肢無力) 등의 腎虛하여 졸도하고자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腎精이 모자라 거두워들이는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은 중풍전조의 발병요소

중의 하나다.

1-5. 內風에 痰을 낚(內風挾痰)(江案).

평소 肝은 왕성하고 脾는 虛弱한 사람은 土가 虛하여 水를 제어할 수 없어서 痰飲이 생기고 肝陽이 치우쳐 亢盛해지고 內風에 痰을 낚 것이 위를 어지럽히면 “脈弦動, 眩暈” 등의 중풍전조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淸陽이 적고 도는 것이며 內風이 날로 끓어오르는데 봄의 地氣의 上升을 당하게되면 가장 風痺가 될까 걱정된다.”(此淸陽少旋, 內風日沸, 當春地氣上升, 最慮風痺.) 그러므로 內風에 痰을 낚 것은 중풍전조의 발병요소중의 하나다.

2. 前兆4症

예씨의 중풍전조를 논치한 6안을 綜觀하여 보면 중풍전조의 특징적인 증상은 다음의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2-1. 팔 다리의 뼈마디가 나무처럼 뻣뻣하다(指節麻木).

중년 이후에 精血이 모자라고 陰虛陽亢한데다 情志勞倦이 누적되면 肝相火가 왕성해져 脂液이 모자라 四末을 營養할 수 없게 된다. 팔 다리의 뼈마디가 나무처럼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바로 『證治匯補』의 「中風篇」에서 말한 “평소 건강한 사람이 손가락이 뻣뻣하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는 것은 바로 中風前兆다.”(平人手指麻木, 不時眩暈, 乃中風先兆)라는 뜻이다.

2-2. 몸이 마비되고 살이 바르르 떨린다(麻痺肉瞶).

脾는 몸의 肌肉을 주관한다. 만일 노권으로 脾가 손상되거나 正氣가 모자라면 陽虛衛疏가 일어나고 衛氣가 虛하면 分肉을 따뜻하게 할 수 없고 皮膚를 충실히 할 수 없으며 腠理를 살찌울 수 없게 된다. 風邪가 虛한 틈을 타서 經絡으로 적중해 들어가면 氣血이 막히게 되

고 肌膚經脈이 영양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부가 마비되어 감각이 없게 되고; 脾가 허하여 陽氣가 갈무리되지 못하면 內風이 움직여 기육이 바르르 움직이게 된다.

2-3. 입술과 혀가 뻗뻗하다(脣舌麻木).

足陽明胃脈이 입을 끼고 입술을 들며, 足太陰脾의 脈이 舌本에 연결되고 舌下에 흠어져 있는데, 만일 五志의 氣와 火가 지나치게 심하고 肝膽의 내풍이 脾胃를 乘侮하며 비위의 맥이 허하여 입술과 혀를 영양하지 못하면 입술과 혀가 뻗뻗해진다.

2-4. 脈弦動而眩暈

弦脈은 肝脈이고 또 痰飲을 주관한다. 만일 평소에 土가 쇠약하고 水가 모자라는 사람이 土가 허약하면 “濕 스스로는 土의 제어가 없어서 痰이 생기게”(則濕自無土制而痰以生) 된다. 그러므로 그 맥은 자연 弦脈이 되고(『脈理求真』「卷1」) 痰이 위를 壅塞하게 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바로 생긴다. 水가 모자라면 肝木을 涵養할 수 없어 肝相火가 왕성해지면 弦脈이 나타나고 肝陽이 上亢하기 때문에 머리와 눈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다. 動脈은 陰과 陽이 조화를 잃고 氣와 血이 逆亂한 소치로 여기에 “반드시 때 아니게 떨치고 빠르게 되는 질환이 있게 되면”(必有非時奮迅之患)(『脈訣滙辨』「卷4」) 辨中에 跌仆의 累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예씨는 脈弦動而眩暈한 사람은 “마땅히 봄에 地氣가 위로 올라가서 風邪가 될까바 걱정이 된다.”(當春地氣上升, 最慮風邪.)라고 생각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만일 나이가 40세가 넘어 팔 다리의 마디나 입술과 혀가 뻗뻗하고(指節或脣舌麻木) 몸이 마비되며 살이 바르르 떨리고(麻痺肉瞶) 脈弦動而眩暈 등의 증은 모두 중풍전조증으로 반드시 예방과 치료를 해야 한다. 이미 풍을 맞은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맞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나는데 이는 바야흐로 辨中에 넘어지는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3. 論治 4法

졸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예씨는 전조증에 대해 4종의 치료방법으로 처리했다.

3-1. 益陰柔肝法

이 법은 肝陽이 熾盛하고 熱이 썩서 몸안의 液이 모자라게 된 자에게 사용된다. 指節麻木 面熱 喉舌乾燥 心中填塞 배고프지도 않고 음식물이 받지도 않음 舌紅苔少 脈弦動의 증상이 나타난다. 마땅히 鮮生地 元參心 桑葉 丹皮 羚羊角 連翹心 등 淸淡한 한약을 가려 써서 上焦竅絡의 熱을 淸泄시키고(盧案); 혹은 山梔 青菊葉 花粉 天麻를 더 넣고(胡案); 혹은 石斛 化橘紅 白蒺藜 秦皮 草決明 桑葉 鈎藤 生白芍을 써서 熄風淸熱시킨다(某嫗案). “肝은 剛臟으로 柔潤시키지 않으면 調和될 수가 없다.”(肝爲剛臟, 非柔潤不能調和也.)라 했다.

3-2. 封固護陽法

陽虛衛疏證에 쓴다. 麻痺 肉瞶 心悸 汗泄 煩躁 舌淡 脈弱의 증상이 나타난다. 人參 黃芪 附子 熟朮(周案)을 가려써서 心脾의 氣를 보태 주고 衛表의 陽을 굳게 하면 氣가 채워지고 表가 굳어져 虛風이 침범하기 어렵고 졸도를 면할 수 있다.

3-3. 填補腎精法

“腎精이 모자라 거두워들이는 권한이 없는”(腎精虧虛, 收納無權) 자에게 쓴다. 脈弦動 眩暈 耳聾 下肢麻痺 걸어가고 뛰어가면 숨이 차고 힘이 없다 동구멍의 痔疾이 아래로 내민다 舌淡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마땅히 虎潛丸加減을 쓴다: 虎骨 陳皮 龜版 乾薑 知母 白芍藥 肉蓯蓉(曾案); 혹은 熟地 肉蓯蓉 生虎膝骨 滙牛膝 製首烏 川萆薢 川石斛 赤白茯苓 柏子霜(某嫗二診方)을 쓴다. 이것은 모두 “약물의 質

이 두터워 陰을 채워넣고 甘味로 風을 그치게 하므로써”(質厚填陰，甘味熄風) “위는 맑히고 아래는 實하게”(清上實下) 할 수 있고, “肝腎의 眞氣를 거둬들여 下虛한 本病을 補益하게”(攝納肝腎眞氣，補益下虛本病) 할 수 있으며 “風이 그치고 液이 적서져서 中厥에 이르지 않게”(風熄液潤，不致中厥) 된다.

3-4. 化痰熄風法

內風에 痰을 낫(內風挾痰) 증에 쓴다. 脈弦動 眩暈 痰多 胸痹窒塞 舌苔白膩의 증상이 나타난다. 明天麻 白茯苓 桂枝木 半夏 橘紅 茯苓 苡仁 炙草(江案)를 가려써서 痰이 없어지고 風이 그치며 어지럼증이 질로 누르러져 痲中에 이르지 않게 된다.

예씨는 증풍전조증을 論治할 때에 또한 평상시의 調攝을 매우 중요시해서 전조증이 발생할 때의 치료를 제시했다. 바로 “잠간동안 한약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 가늠을 해본다면, 틈나는대로 養生을 하고 保溫관리를 하는 것이 더욱 마땅히 藥餌를 주기에 앞서 고려해 놓아야 한다.”(暫藥權衡也，至於頤養功夫，寒暄保攝，尤當加意於藥餌之先.)(某嫗案)를 말하는데, 이는 반드시 “수고로움을 조절하고 술마시는 것을 조심하면”(節勞戒飲) “졸도하는 것을 면할 수 있음”(可免仆中)(曾案) 경계해서 알려준 말로서, 예씨의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하고 攝生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상을 충분히 체험해서 보여준 것이다.

4. 小結

이상 위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예씨는 『임증지남의안』의 증풍전조案중에서 전조의 發病5因 즉, 厥陰의 內風이 上乘하고 “升騰이 지나쳐 脂液이 四末을 營養할 수 없다.”(升騰太過，脂液無以營養四末.），“中年에 勞倦하면 陽氣가 갈무리되지 않아 內風이 움직이고 넘쳐나게 된다.”(中年勞倦，陽氣不藏，內風動越.），“五志의 氣와 火가 위에서 엇갈려 병

합한다.”(五志氣火交并於上.），“腎精이 모자라 거두워들이는 권한이 없다.”(腎精虧虛，收納無權.），內風에 痰을 낫(內風挾痰)을 논술했고; 指節麻木 痲痺肉瞶 脣舌麻木 脈弦動而眩暈의 전조4증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益陰柔肝 封固 護陽 填補腎精 化痰熄風의 4법으로 나누어 논치를 진행할 것을 제시했고; 졸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소에 추위와 더위에 대해 保攝하고 과로를 줄이고 과음을 조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증풍전조증의 예방과 치료에 여전히 비교적 큰 지도의의가 있다.